

## 한국패션산업협회, 모드 상하이 참가 “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 K-패션 아시아 판로 확대 지원”

- 한국패션산업협회(회장 성래은, 이하 ‘협회’)가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르돔 쇼룸\*은 지난 10월 9일부터 13일, 5일간 중국 상해 패션위크 공식 패션 수주전시회인 모드 상하이 (MODE Shanghai 2025 S/S)에 참가했다.
  - \* 르돔 쇼룸 : K-패션 브랜드의 국내외 세일즈 마케팅 지원 거점으로 산업부가 추진하는 섬유패션 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인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프로그램
- 이번 전시에는 △나루강(NARUKANG) △덕다이브(DUCKDIVE) △멜라비앙카(Mela Bianca) △시온드(second) △이외들(IOEDLE) △오헤시오(OHESIO) △지로그(ZEROG) 등 국내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유니섹스, 여성복, 패션잡화 7개사가 참가하여 현지 바이어들로 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.
  - 르돔 쇼룸에 방문한 300여명의 바이어들은 100여건의 상담을 통해 K-패션 브랜드의 경쟁력을 확인하였다. 특히 L’Avenue와 JD Sports 등 유명 패션 리테일 기업과의 샘플오더, 샤오홍수 및 400만 팔로워를 가진 왕홍 “둥제” 등과의 라이브커머스 협업 상담을 통해 향후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.
-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르돔 쇼룸은 지난 도쿄 트라노이와 뉴욕 코트리, 이번 모드 상하이까지 글로벌 패션 전시 참가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K-패션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.



2024 모드 상하이 (2024.10.9~10.13, 상해 이평센터) ©한국패션산업협회